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성경말씀: 롬8:1-6

연말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캐럴도 흘러나오고 분위기가 좋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절 행사로 매우 바쁘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 보니 성탄 트리 하나 없어 아이들도 궁금해 한다.

종교는 화려하게 꾸미고 행사하는 것을 통해 사람을 속임수로 이끈다.

아무리 화려하고 기쁘고 멋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거짓말이다.

현재 온 세상은 12월 25일을 성탄절 즉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다.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한다. 교회는 거짓을 가르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만 추구한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제인가? 킵바이블 사이트의 구글 검색 <예수님 탄생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침례자 요한이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들의 24계열 구분에 따라 아비아 계열이었고(눅1:5)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그는 4월경에 출생하였다. 따라서 예수님은 10월경에 출생하였다. 연대는 BC4년경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AD 30년 4월 10일경의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왜 교회와 세상은 12월 25일을 지키는가?

일단 알아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는 교회가 지킬 절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님 출생일이 이상승배 대상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성탄절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난 사실이 중요하지 날이 중요하지 않다. 구약시대에는 각종 절기가 많았다. 날을 귀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골2:16-17, 20, 실체가 왔으므로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AD 100년 이후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313년의 밀라노 칙령 이후로 이교도들의 절기가 교회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4세기 후반에 고대 로마의 태양신 솔(Sol)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하여 지키기 시작하였고, 5세기에 이르러서는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이교 축제는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및 태양 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데 합쳐서 생기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1,000년 이상 중세암흑시대가 되어 온 세상이 카톨릭 지배 하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12월 25일이 세상의 명절이 되었다.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 교회 역시 이런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 지키고 있다.

산타(Santa)는 사탄(Satan)에서 나왔다. 산타클로스의 니콜라스(Old Nick)는 마귀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12월 25일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가가 정해 준 공휴일이므로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하면 된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구정과 비슷한 명절로 자리잡았다.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우리는 우리만 지키지 않으면 되지 지키는 사람을 나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롬14:5, 8, 다만 묻거든 탄생일은 아니라고 진실만 이야기하면 된다.

비록은 탄생일은 아니라 해도 탄생 자체는 깊이 의미해 볼 필요가 있다.

크리스마스를 무시하다가 탄생의 의미를 놓치면 소탐대실이 된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부모가 되 보면 안다.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자식이 가장 중심에 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속마음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들어 있다(사49:15). 이런 존재가 없다. 마귀들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을 사람을 지으셨다. 온 우주 공간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마귀의 계략에 의해 다음과 이브 안에서 죄가 수태되어 결국 사람은 타락하고 영적으로 모두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모두가 죄인이다. 지난 6,000년 동안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모두 육체적으로 죽고 또 영적으로 죽은 이중 사망의 정죄를 받고 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사람을 구할 방도를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고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죄를 그대로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다 죽이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며 완전한 삶을 사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한 번에 영원무궁토록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다(롬 8:3; 시8:4).

이 길 외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길은 없다. 아무리 머리를 짜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이시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지혜가 실행에 옮겨진 것

1. 정죄함이 없다(1).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정죄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성령님의 법으로 산다(2).

사람이 100층 빌딩에서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 곧장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된다.

그런데 낙하산을 주면 양력의 법칙에 의해 살 수 있다. 엔진을 달면 심지어 중력을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곤두박질치던 사람에게 낙하산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지배 법이 바뀐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무궁토록 거하신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다.

3.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율법은 “해라”와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도 못한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못한다.

롬7:21-25 설명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한 것으로 보신다.

그래서 실제적으론 법정에 들어가 때는 죄인이지만 나올 때는 의인이 되어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롬8:31)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다.

4. 성령의 일들을 한다.

구원 받으면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오늘 전도사, 집사, 지역 인도자, 교사, 각종 섬김, 헌금, 권면, 전도 등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다.

결론

12월 25일은 성탄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1. 정죄함 No!, 2. 생명의 법, 3. 율법의 의 성취, 4. 성령님의 일 가능